투석을 거부하는 심리, 투석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관해서

Shigekazu Haruki, M.D.

Aoba Clinic, Japan

과거 일본에서 투석은
'인공신장'으로 불렸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Artificial Kidney라고
불리며 기재되고 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인공신장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요?
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와~선생님, 건강해 보이시네요.
좋아지셨군요. 이제 투석을 안 해도
괜찮으신 거군요.」

「뭐? 투석은 지금도 하고 있다네!」

「이렇게 건강해지셨는데도 1주일에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투석환자가 처한 상황

1) 혈액투석, 복막투석(CAPD), 신장이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 일본에서는 대부분 혈액투석을 선택한다.
2) 투석을 계속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중단하면 약 1주일~ 10일 내에 사망한다.
3)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투석시설을 갖춘 곳에 가야하고 평생 반복된다.
4) 1회 4~5시간이 소요되므로 자유롭지 못하다.
5) 식사와 음수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 「투석은 싫다」,
「평생 투석을 해야 한다니」

투석환자가 항상 마음속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은
「왜 이런 걸 계속해야 하는가」
「가능하면 투석은 그만하고 싶다」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좋은 방법은 없는 걸까」

이것이 「투석을 거부하는 심리」,
「투석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다.

투석을 계속 받고 있는 환자에게

「솔직히 당신은 투석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죠?」 라고 묻더라도

「네, 그래요」라는 대답은 듣기 어렵습니다.

「생체신장이식 환자가 말하는 투석 거부심리」

1)투석 도입 전의 투석 거부 심리

「평생 투석을 해야 한다니……」(43세 여성)
「평생 투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34세 남성)
「평생 한다니 낙심했다.」 (21세 여성)
「충격이라는 말로는 모자랐다. 평생 낫지 않는다는 말이 충격이었다. 솔직히 말해 인생을 포기한 느낌이었다.」 (39세 남성)
「투석은 죽을 만큼 싫다!! 투석하러 갈 정도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22세 남성)
「당장 이식해라! 안 되면 죽어버리겠다!」 (20세 남성)
「투석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떻게든 안 될까 싶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힘들어져서 투석을 하게 되었다. 싫다 싫어 라고 되뇌었다.」(30세 남성)

이미 투석 도입 이전부터 투석치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2)투석 도입기의 투석 거부 심리

「이걸 평생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견딜 수 없었다.」 (35세 남성)
「이런 걸 평생 계속해야 하나, 이 방법밖에 없는가」 (29세 남성)
「투석은 싫다!! 해본 후 비로소 이건 싫다라고 생각했다.」 (45세 여성)
「투석이란 것이 실제보다 간단한 줄 착각했다. 이렇게 괴로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몸서리쳐진다.」 (48세 여성)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건 싫다.」라고 생각한다. 특히 「평생 계속된다.」라는 점에 더욱 싫어한다.

3)중간기의 투석 거부 심리

2~3년이 지나면 「투석에 익숙해졌을」 시기이지만 「익숙해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투석하러 가는 게 싫다. 가고 싶지 않다」 (현관에서 주저앉아 버린다.) (35세 기혼남성)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분명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투석을 그만두고 싶다.」 (33세 여성)
「싫다 싫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40세 남성)
「단 1분, 2분이라도 빨리 바늘을 빼줬으면 좋겠다.」 (40세 여성)
「투석이 시작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빨리 안 끝나나, 아직 멀었나 하는 생각뿐이다.」 (38세 여성)
「투석을 한다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주 3일이나 구속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해방되고 싶다.」 (34세 여성)
「투석이 점점 싫어졌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넌더리가 난다.」 (40세 남성)

4)신장이식을 앞둔 상황에서 투석에 대한 강한 부정적 감정

이제 이식을 하게 되니 더더욱 투석을 거부하고 싶어진다.

「만약 이식(형에게서 신장을 제공받음)이 잘못되면 다음엔 사체 신장이식을 희망한다.」 (39세 남성)
「이식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투석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36세 남성)
「이번 이식이 (어머니에게서 제공 받음) 잘못되면 다음엔 동생 것을 받고 싶다.」 (28세 남성)

* 모든 투석환자에게 숨겨져 있는「투석 거부 심리」

앞서 말한 내용은 신장이식 환자들만이 가진 심리가 아니다. 모든 투석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해 온 기본적인 감정이다.
투석 스태프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길 바란다.

이러한 감정으로부터「억울」,「불안」,「분노와 공격」,「행동화」,「불응(**non-compliance**)」,「가정 내, 투석 스태프와의 알력」,「신체적인 면의 악화,
합병증 발생」이 비롯된다.

정신의학과 신장병학 : Psychonephrology

Norman B. Levy에 의해 1970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초 Nephro-Psychiatry도 후보에 올랐다.

Psychological, Psychosocial, Psychoethical, Psychiatric, Psychosomatic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Liaison-Consultation Psychiatry의 한 분야 (subdivision)
2000년까지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sychonephrology로서 계속되었다.
그 이후 재정난 때문에 국제 심신의학회에 통합되었다.